

2018서울시 1회 9급 B책형

아주 자세한 해설, 재미있는 암기tip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

출력할 때 페이지가 최대한 짧기지 않게 하여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1)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1)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황진희 시조 해설 초대박 적중 / p. 61, 346 >

< 보기 >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님 오신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① 사랑하는 임의 안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 ②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④ '어론님 오신날'은 화자의 소망과 관련된 구절이다.

문1)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1)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황진희 시조 해설 초대박 적중 / p. 61, 346 >

< 황진이의 시조 >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 >
春風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 춘풍이불 아래 서리서리 념헛다가 >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정든 임 오신 날 밤이면 굶이굶이 퍼리라, >

- ◆ 시간적 개념이 공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는 경우
- ◆ 추상적 개념(밤)을 구체적 개념(베어 내어)으로 표현함
- ◆ 시간적 개념(冬至스들 기나긴 밤)
- ◆ 공간적 개념(春風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 ◆ 황진이의 시조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① 사랑하는 임의 안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X) → 사랑하는 임의 안위(安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는 없다.

- ◆ 안위(安危): 편안함과 위태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

- ②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O)
 ◆ 추상적인 시간(동짓달 기나긴 밤)을 구체화하여(한 허리 베어 내어) 제시하고 있다.
- ③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O)
 ◆ 의태어 '구뽀구뽀'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 굵이굵이: 「명사」여러 개의 굵이. 또는 휘어서 굵은 곳. / 「부사」여러 굵이로 구부러지는 모양.
- ④ '어론님 오신날'은 화자의 소망과 관련된 구절이다. (O)
 ◆ 임이 자기한테 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정답: ①

문2) 한자어 없이 고유어로만 구성된 문장은?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2) < 영보이 특급 암기tip >

- ① 그의 모습을 보자 모골이 송연해졌다.
 ② 도대체가 무슨 일인지 가늠이 안 된다.
 ③ 나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여 매사에 임한다.
 ④ 그 노래를 들으니 불현듯 어릴 적이 떠오른다.

문2)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2)

- ① 그의 모습을 보자 모골(毛骨)이 송연(悚然/竦然)해졌다.
 ② 도대체(都大體)가 무슨 일인지 가늠이 안 된다.
 ③ 나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여 매사(每事)에 임한다.

④ 그 노래를 들으니 불현듯 어릴 적이 떠오른다. (O)

☺< 영보이 특급 암기tip >

★ 한자어를 파악하는 문제는 낱말에서 한자를 한 글자 정도 외우는 것이 좋다.

◆ 고유어를 파악하는 문제는 낱말 앞에 '우리'를 붙여 외우면 기억이 오래간다.

한자어	우리 - 고유어	
◆ 모골(毛骨): 毛(털 모)	◆ 우리 - 모습	◆ 우리 - 노래
◆ 송연(悚然/竦然): 然(그러할 연)	◆ 우리 - 가늠	◆ 우리 - 불현듯
◆ 도대체(都大體): 大(큰 대)	◆ 우리 - 생각	
◆ 매사(每事): 事(일 사)	◆ 우리 - 거듭	

정답: ④

< 보기 > 봄이면, 아름다운 서울의 공원과 거리의 나무에서 봄꽃들이 활짝 피어난다.

-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ungboy0710> 이메일: youngboy0710@naver.com - 3 -

① 항상 보면 이등병들이 말썽이더라. <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

◆ 항상, 365일 보지도 않고 몇 번 본 경우만 보고 이등병들이 말썽이라는 성급하게 일반화하고 있다.

② 내 부탁을 거절하다니, 넌 나를 싫어하는구나. (O) < 흑백논리의 오류 >

◆ 내 부탁을 수락하면 나를 좋아하는 것 ↔ 내 부탁을 거절하면 나를 싫어하는 것

③ 김 씨는 참말만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순환논증의 오류이다.

◆ 순환논증: 논증되어야 할 명제를 논증의 근거로 하는 잘못된 논증. 논점 절취의 허위의 하나로, 논증하여야 하는 결론을 잠재적·현재적으로 논증의 전제로 하는 논증 방법이다. 그러므로 결론의 진리와 전제의 진리가 서로 의존하여 논증의 형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로 논증되지는 않는다. ‘그는 정직하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속이지 않기 때문이다.’와 같은 따위이다.

④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러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죄악이다. < 원칙 혼동의 오류 >

◆ 원칙 혼동의 오류: 일반적인 개념을 특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 즉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악이지만 환자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한 특수 경우에도 죄악이라 하여 원칙을 혼동하고 있다.

정답: ②

문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5)

< 보기 >

감독관 원고! 원고!

교수 (일어나며) 네, 곧 됩니다. 또 독촉이군.

감독관 (책상 쪽을 가리키며) 원고! 원고!

교수, 소파 한구석에 있던 가방을 집어 갖고서 황급히 책상에 가 앉는다. 가방에서 원고를 끄집어내고 책을 펼친다.

감독관 원고! 원고!

이윽고 교수는 번역을 시작한다.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진다. 처가 들어온다. 큰 자리를 손에 들고 있다.

처 어머니!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막대기에 감긴 철쇄를 줄줄 끌어다 교수의 허리에 감아 준다.

① 전통적인 사실주의 극문학이다.

② 반공주의적인 목적극의 대본이다.

③ 근대극이 뿌리를 내린 시기에 창작되었다.

④ 사회 현실을 풍자한 부조리극이다.

문5)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5)

◆ 이 작품은 이근삼의 희곡, '원고지'(1960)이다.

1)이근삼(李根三)이 지은 희곡. 삶의 참된 의미와 연대 의식을 상실한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희극적으로 풍자·비판한 작품이다.

2)희곡, 부조리극, 단막극. 풍자적, 반어적

① 전통적인 사실주의 극문학이다. (X) → 기존의 사실주의(리얼리즘)를 거부하고 국내에서 발표된 첫 희곡(戲曲)이다.

② 반공주의적인 목적극의 대본이다. (X) → 반공주의적이 아니라 풍자적, 반어적이다.

◆ 반공(反共): 공산주의에 반대함.

◆ 반공법(反共法): 1961년 7월 3일에 공산 계열의 활동을 막기 위하여 공포한 법률. 1980년에 '국가 보안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③ 근대극이 뿌리를 내린 시기에 창작되었다. (X) → 1960년에 창작되었다.

◆ 근대극(近代劇): 19세기 말에 낭만주의에 대응하여 일어난 유럽의 사실주의 연극. 입센이 그 창시자로, 근대 시민의 사상과 감정을 반영하며 사실성을 바탕으로 사회와 인생 문제를 다루었다.

④ 사회 현실을 풍자한 부조리극이다. (O)

◆ 삶의 참된 의미와 연대 의식을 상실한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희극적으로 풍자·비판한 작품이다.

정답: ④

문6)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6)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38) 한국어의 특성 (p.466 ~ 472) 정리 >

①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교착어적 특성을 보여 준다.

② '값'과 같이 음절 말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다.

③ 담화 중심의 언어로서 주어, 목적어 등이 흔히 생략된다.

④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발달해 있다.

문6)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6)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38) 한국어의 특성 (p.466 ~ 472) 정리 >

①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교착어적 특성을 보여 준다. (O)

◆ 교착어: 언어의 형태적 유형의 하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차례로 결합함으로써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로, 한국어·터키어·일본어·핀란드어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 ≡ 부착어·접착어·첨가어 >

cf. 굴절어: 형태론적 특징으로 본 언어의 한 유형. 어형과 어미의 변화로써 단어가 문장 속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를 이른다. 인도·유럽 어족에 속한 대부분의 언어가 이에 속한다.

② ‘값’과 같이 음절 말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다. (X) → 음절 말에는 하나의 자음만 발음된다. 다시 말해 ‘값’은 [값]이 아니라 [갑]으로 발음된다.

◆ 음절의 끝소리 법칙: 다음 7개만으로 발음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ㅇ]

③ 담화 중심의 언어로서 주어, 목적어 등이 흔히 생략된다. (O)

◆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서로 알고 있는 것 주어, 목적어 등은 흔히 생략한다.

☺영보이 특급 희곡

엄마: 이제 오니? 오빠는 자고 있다.

딸: (오빠는) 밥 먹고 자는 거야? < 주어인 ‘오빠’가 생략됨. >

엄마: (밥) 먹었지, 아마... < 목적어인 ‘밥’이 생략됨. >

딸: 그러면 오빠 옆에서 껌껌거리면서 라면 먹어야지. ㅋㅋ

엄마: 오빠 화나게 하지 마.

④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발달해 있다. (O)

◆ 아버지의 형제: 백부, 삼촌, 외삼촌, 작은아버지, 도련님, 서방님...

◆ 어머니의 형제: 숙모, 이모, 작은어머니, 아가씨, 고모...

정답: ②

문7) 로마자 표기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7)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 p. 152, 153, 156, 264 >

- ① 종로[종노] → Jongro ② 알약[알락] → allyak
③ 같이[가치] → gachi ④ 종고[조코] → joko

문7)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7)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 p. 152, 153, 156, 264 >

① 종로[종노] → Jongro (X) → Jongno

◆ 종로[종노][ㄴ]: 종로는 [종노]로 발음되므로 [ㄴ]을 반영하여 ‘Jongno’라 표기한다.

② 알약[알락][ㄹㄹ] → allyak (O)

◆ ‘알약’은 [알락]으로 발음되므로 ‘[ㄹㄹ]’을 반영하여 allyak으로 표기한다.

③ 같이[가치] → gachi (O)

◆ ‘같이’는 [가치]로 발음되므로 ‘[ㄷ]’을 배제하고 ‘[ㅈ]’을 반영하여 ‘gachi’라 표기한다.

◆ ‘같이’는 ‘구개음화’ 현상으로 [가치]라 발음된다.

◆ 구개음화(口蓋音化):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ㅈ’, ‘ㅊ’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ㅊ’이 되는 현상. ‘굳이’가 ‘구지’로, ‘굳히다’가 ‘구치다’로 되는 것 따위이다. ≡경구개음화·입천장소리되기.

◆ 구개음(口蓋音): 혀바닥과 경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ㄷ’, ‘ㅌ’, ‘ㄷ’ 따위가 있다.
≡ 경구개음 · 상악성 · 상악음 · 셴입천장소리 · 입천장소리 · 전구개음

④ 좋고[조코] → joko (O)

◆ ‘좋고’는 [조코]로 발음되므로 ‘ㅎ’을 무시하고 ‘[ㄷ]’을 반영하여 ‘joko’라 표기한다.

◆ ‘좋고’는 ‘축약’현상으로 ‘ㅎ’과 ‘ㄱ’이 결합하여 ‘[ㄷ]’이 된다.

◆ 축약: 유기음화는 ‘ㅎ’과 ‘ㄱ, ㄷ, ㅌ, ㅈ’ 중 하나가 만날 때 이 두 자음이 하나의 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 자음축약: 만형, 놓고, 굳히다(축약 + 구개음화 + 동화), 잡히다, 좋고, 많다 > < 모음축약: 뵈다(모음 축약), 뵈(모음 축약), 와서(모음 축약), 막혀(자음 축약 + 모음 축약), 봐, 썼다

정답: ①

문8) 맞춤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8)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꼭 짚어 밑줄 초대박 적중 / p. 236, 257 >

- ① 철수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보람을 느꼈다.
- ② 이제 각자의 답을 정답과 맞춰 보도록 해라.
- ③ 강아지가 고깃덩어리를 넙죽 받아먹었다.
- ④ 아이가 밥을 먹었을는지 모르겠어.

문8)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8)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꼭 짚어 밑줄 초대박 적중 / p. 236, 257 >

① 철수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보람을 느꼈다. (O)

◆ 철수는 열심히 일하므로_ 보람을 느꼈다. (O)

◆ 철수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보람을 느꼈다. (O)

② 이제 각자의 답을 정답과 맞춰 보도록 해라. (X) → 맞춰 / 맞추어

◆ 맞추다: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

1) 맞추어 = 맞춰 < 나는 가장 친한 친구와 답을 맞춰 보았다. / 여자 친구와 다음 주 일정을 맞춰 보았더니 목요일에만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 시험이 끝나면 아이들은 서로 답을 맞춰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 우리들은 다음 달 일정을 맞춰 보고 나서 여행 계획을 짜기로 했다. / 그는 시험지를 정답과 맞춰 보고 나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

◆ 맞히다 - ‘맞다’의 사동사

◆ 그렇게 착한 여자에게 반쯤을 맞히다니 용서할 수 없다.

◆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소박을 맞히고 나서 두고두고 후회하셨다.

◎영보이 암기tip) < 바람 - 히 / 소박 - 히 >

- 정답: ②

- 8 -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ungboy0710> 이메일: youngboy0710@naver.com

④ 바르래 가느니 (O) < 바다에 가나니 >

◆ 바를래(흔칠표기) → 바르래(이어 적기)

◆ ‘바를래’는 흔칠표기로 이어 적기로 쓸 경우에는 ‘바르래’로 표기한다.

정답: ③

문10) <보기>의 ㉠에서 밑줄 친 ㉠ ~ ㉣ 중 ㉡가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서울시1회 9급 책형 B문10)

< 보기 >

㉠ 초상화에서 좌안 . 우안을 골라 그리는 데 대한 일반적인 이론은 대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표정은 왼쪽 얼굴에 더 잘 나타난다는 이론이며, 다른 하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우뇌인데 시야의 왼쪽에 맺힌 상(像)이 우뇌로 들어오기 때문에 왼쪽이 더 잘 그려진다는 이론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대부분의 화가는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며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편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초상화 작품들을 살펴보면 ㉡좌안 . 우안이 시대에 따라 어떤 경향성을 띠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비록 원본은 아니지만 고려 말 염제신의 초상화나 조선 초 이천우의 초상화들은 대체로 우안이며, 신숙주의 초상화 이후 조선시대의 초상화들은 거의가 좌안입니다.

㉢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에는 보통 눈 , 코 , 입의 윤곽이 중요하므로 이를 먼저 그리게 된다. 좌안을 그리면 왼쪽에 이목구비가 몰려 있어 이들을 그리고 난 후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 뺨 , 귀 , 머리, 오른쪽 윤곽 순으로 그려나간다. 이렇게 하면 손의 움직임도 편할 뿐 아니라 그리는 도중 목탄이나 물감이 손에 묻을 확률도 줄어든다.

① ㉠

② ㉡

③ ㉢

④ ㉣

문10)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10)

◆ (나)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에는 보통 눈 , 코 , 입의 윤곽이 중요하므로 이를 먼저 그리게 된다. 좌안을 그리면 왼쪽에 이목구비가 몰려 있어 이들을 그리고 난 후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 뺨 , 귀 , 머리, 오른쪽 윤곽 순으로 그려나간다. 이렇게 하면 손의 움직임도 편할 뿐 아니라 그리는 도중 목탄이나 물감이 손에 묻을 확률도 줄어든다.

◆ ㉣대부분의 화가는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며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편하다.

◆ (나)의 굵게 밑줄 친 부분과 ㉣의 굵게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정답은 ㉢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문11) 국어의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11)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의존 형태소" 해설 초대박 적중 / p. 534, 537 >

- ① 조사는 앞말에 붙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존 형태소'이다.
- ② 동사의 어간은 스스로 실질적인 단어이므로 명사와 더불어 '자립 형태소'이다.
- ③ 명사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동사의 어간과 더불어 '실질 형태소'이다.
- ④ 어미는 조사와 마찬가지로 문법적 기능을 하므로, '문법 형태소'이다.

문11)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11)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의존 형태소" 해설 초대박 적중 / p. 534, 537 >

- ◆ 의존 형태소: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형태소. 어간, 어미, 접사, 조사 따위가 있다.
- ◆ 자립 형태소: 다른 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혼자 설 수 있는 형태소.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철수', '책' 따위이다.
- ◆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철수', '책', '읽' 따위이다.
- ◆ 문법 형태소: 문법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라고도 하는데,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 조사, 어미 따위가 있다.

- ① 조사는 앞말에 붙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존형태소'이다. (O)
 ◆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가', '을' 따위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는 의존형태소이다.

- ② 동사의 어간은 스스로 실질적인 단어이므로 명사와 더불어 '자립 형태소'이다. (X)
 → 동사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지만 자립할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 읽다 : 읽(동사의 어간) + 기(명사형 전성어미) → 읽기 : 명사형 동사
 ◆ 동사 '읽다'에서 어간 '읽-'은 '실질 형태소'이지만 자립할 수 없기에 '의존 형태소'이기도 하다.

◎영보이 개그: 철수야, 너 책 읽? / 순희야, 너 뭘 소리야! '읽'이 뭐야? '읽'은 '실질 형태소'이지만 자립할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므로 "너 책 읽었니?"로 물어 봐야지. 이 친구야!!

- ◆ 어간(語幹): 활용어가 활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부분. '보다', '보니', '보고'에서 '보-'와 '먹다', '먹니', '먹고'에서 '먹-' 따위이다.

- ③ 명사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동사의 어간과 더불어 '실질 형태소'이다. (O)

- ◆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철수', '책' 따위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질 형태소이다.

- ④ 어미는 조사와 마찬가지로 문법적 기능을 하므로, '문법 형태소'이다. (O)

- ◆ 어미: 용언 및 서술격 조사가 활용하여 변하는 부분. '점잖다', '점잖으며', '점잖고'에서 '다', '으며', '고' 따위이다.

- ◆ 용언: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 형용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문장 안에서 의 쓰임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나눈다.

정답: ②

문12) 한자어의 독음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 12) < "한자 편" 2018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super upgrade 초대박 적중 / 127, 128, 129, 138, 139, 220, 221, 24, 28, 29 / 결제, 묘사 초대박 10번 적중 / 영보이 암기tip 초대박 적중 / 결제와 묘사만 알면 정답 고를 확률 100%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까지 한자 문제 적중 / p. 200, 406 >

< 보기 >

ㄱ.決濟(결제) ㄴ.火葬(화상) ㄷ.模寫(묘사) ㄹ.裁量(재량) ㅁ.冒頭(모두) ㅂ.委託(위탁)

① ㄱ, ㄴ, ㅂ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ㄹ, ㅁ, ㅂ

문12)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12) < "한자 편" 2018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super upgrade 초대박 적중 / 127, 128, 129, 138, 139, 220, 221, 24, 28, 29 / 결제, 묘사 초대박 10번 적중 / 영보이 암기tip 초대박 적중 / 결제와 묘사만 알면 정답 고를 확률 100%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까지 한자 문제 적중 / p. 200, 406 >

ㄱ.決濟(결제) (X) → 決濟(결제)

◆ 決濟(결제): 決(결단할 결) 濟(건널 제)

a)의미: 일을 처리(處理)하여 끝을 냄. / 증권(證券)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當事者) 사이의 거래(去來) 관계(關係)를 끝맺는 일.

b)예: 카드 요금 決濟(결제), 현금 決濟(결제).

★決濟(결제)에서 '제'자에는 'ㄹ(물 수)'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물(ㄹ: 물 수)을 마시며 카드로 決濟(결제)하였다.

2)決裁(결재): 決(결단할 결) 裁(마를 재).

a)의미: 결정할 권한(權限)이 있는 상관(上官)이 부하(部下)가 제출(提出)한 안건(案件)을 검토(檢討)하여 허가(許可)하거나 승인(承認)함. '재가(裁可)'로 순화.

b)예: 시장님 決裁(결재)

★決裁(결재)에서 '재'자에는 '의(옷 의)'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시장님은 간담회 때 행사 옷(衣: 옷 의)까지 입고 決裁(결재)하셨다.

ㄴ.火葬(화상) (X) → 火葬(화장)

1)火葬(화장): 火(불 화) 葬(장사지낼 장). 발음: [화:장](긴소리)

a)의미: 시체를 불에 살라 장사 지냄. ≡ 소산(燒散)

◆ 火葬(화장)은 '火(불 화) 葬(장사지낼 장)'을 쓰는데, '火(불 화)'는 그 자체로 쓰고 '葬(장사지낼 장)'에는 'ㅊ(풀 초)'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시체 火葬(화장)을 할 때는 불(火: 불 화)이 잘 붙는 풀(ㅊ: 풀 초)이 필요하다.

* 동음이의어

1)化粧(화장): 化(되풀이 화, 잘못 와) 粧(단장할 장)

a)의미: 화장품을 바르거나 문질러 얼굴을 곱게 꾸밈. / 머리카락의 매무새를 매만져 맵시를 냄.

◆ ‘makeup’을 의미하는 ‘化粧(화장)’은 ‘化(되다 화)粧(단장할 장)’을 쓰는데, ‘化(되다 화)’는 그 자체로 쓰고 ‘粧(단장할 장)’에는 ‘米(쌀 미)’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쌀(米: 쌀 미)로 만든 화장품이라 그런지 化粧(화장)을 할 때 맛보고 싶다.

2)火傷(화상): 火(불 화) 傷(다칠 상). 발음: [화:상](긴소리)

a)의미: 높은 온도의 기체, 액체, 고체, 화염 따위에 데었을 때에 일어나는 피부의 손상. 경증(輕症)은 피부가 벌겋게 된 상태, 제1도는 물집이 생긴 상태, 제2도는 피부가 익어서 갈색이 된 상태, 제3도는 숯덩이같이 된 상태로 화상의 면적이 온몸의 30%에 이르면 생명이 위험하다.

◆ ‘화상을 입다’에서 火傷(화상)은 ‘火(불 화) 傷(다칠 상)’을 쓰는데, ‘火(불 화)’는 그 자체로 쓰고 ‘傷(다칠 상)’에는 ‘亻(사람 인)’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사람(亻: 사람 인)은 火傷(화상)을 입지 않도록 불(火: 불 화)을 조심해야 한다.

c.模寫(묘사) (X) → 模寫(모사)

1)模寫(모사): 模(본뜰 모/모호할 모) 寫(베낄 사)

a)의미: 사물을 형체 그대로 그림. 또는 그런 그림. / 원본을 베끼어 씀.

◆ 模寫(모사)는 ‘模(본뜰 모/모호할 모) 寫(베낄 사)’를 쓰는데, ‘模(본뜰 모)’에는 ‘木(나무 목)’이 들어가고 ‘寫(베낄 사)’에는 ‘冫(집 면)’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집(冫: 집 면) 밖에 있는 푸른 나무(木: 나무 목)를 형체 그대로 模寫(모사)해 보았다. 할 일 정말 없구나..

2)描寫(묘사): 描(그릴 묘) 寫(베낄 사). 발음: [묘:사](긴소리)

a)의미: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 ‘그려 냄’으로 순화.

◆ 描寫(묘사)의 ‘묘’자는 ‘扌(손 수)’가 들어간다. 그리고 ‘사’자는 ‘冫(집 면)’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골리앗의 손(扌: 손 수)을 描寫(묘사)를 할 때 사람들은 그의 손이 집(冫: 집 면)만하다고 한다.

ㄹ.裁量(재량) (O): 裁(마를 재) 量(헤아릴 량(양))

1)의미: 자기의 생각과 판단(判斷)에 따라 일을 처리(處理)함.

◆ ‘裁量(재량)’은 ‘裁(마를 재) 量(헤아릴 량)’을 쓰는데, ‘裁(마를 재)’에는 ‘衣(옷 의)’가 들어가고 ‘量(헤아릴 량)’에는 ‘里(마을 리)’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어떤 색깔의 옷(衣: 옷 의)을 입을지는 각 마을(里: 마을 리)마다 裁量(재량)으로 선택(選擇)할 수 있다.

ㄴ.冒頭(모두) (O): 冒(무릅쓸 모) 頭(머리 두) 頭(머리 두). 발음: [모:두](긴소리)

1)의미: 말이나 글의 첫머리.

◆ 冒頭(모두)는 ‘冒(무릅쓸 모) 頭(머리 두)’를 쓰는데, ‘冒(무릅쓸 모)’에는 ‘目(눈 목)’이 들어가고 ‘頭(머리 두)’에는 ‘頁(머리 혈)’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친구야 ~ 동의보감의 冒頭(모두)에는 눈(目: 눈 목)과 머리(頁: 머리 혈)에 좋은 음식이 나와 있니? 나도 모르니 네가 읽어 보고 나한테도 좀 알려 줄래? 그럼... 우리 절교하자.

ㄴ.委託(위탁) (O): 委(맡길 위) 託(부탁할 탁)

1)의미: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김. / 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는 일.

◆ 委託(위탁)은 '委(맡길 위) 託(부탁할 탁)'을 쓰는데, '委(맡길 위)'에는 '女(여자 여)'가 들어가고 '託(부탁할 탁)'에는 '言(말씀 언)'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그 여자(女: 여자 여)는 선생님의 말씀(言: 말씀 언)을 듣고 사과박스를 委託(위탁)받고 보관 중이다.

정답: ④

문13) 밑줄 친 부분 중에서 품사가 다른 하나는?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13)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34) 품사론 (p.417 ~ 435) 정리 >

- ①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하다. ② 손이 저리다. 아니, 아프다.
③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라. ④ 얼굴도 볼 겸 내일 만나자.

문13) 정답 및 해설(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13)

①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하다. (부사)

◆ '비교적'이 문장(교통이 편하다)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 비교적1: (부사) 일정한 수준이나 보통 정도보다 꽤. < 비교적 쉬운 문제 / 우리 사무실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 >

● 비교적2: (관형사, 명사) 다른 것과 견주어서 판단하는. 또는 그런 것.

cf. 1) 비교적인 관점 - '비교적'이 조사(인)와 결합할 경우에는 명사이다.

2) 비교적 관점, 비교적 연구 - '비교적'이 단독으로 명사(관점, 연구)를 수식할 때에는 관형사이다.

② 손이 저리다. 아니, 아프다. (부사)

◆ 아니: (부사) 명사와 명사 사이에 쓰이거나,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여, 어떤 사실을 더 강조할 때 쓰는 말. < 나의 양심은 천만금, 아니 억만금을 준다 해도 버릴 수 없다. /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아니, 죽어도 안 하겠다. >

③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라. (부사)

◆ 보다: (부사) 어떤 수준에 비하여 한층 더. < 보다 높게 / 보다 빠르게 뛰다 / 그것은 서로 보다 나아지려는 연인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보살핌이었다. >

◆ '보다'는 '동사,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 조사'도 있으니 주의하자.

④ 얼굴도 볼 겸 내일 만나자. (의존 명사)

◆ 겸1: (의존 명사) 둘 이상의 명사 사이에 쓰여, 그 명사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 아침 겸 점심 / 강당 겸 체육관 / 김가는 어릴 때부터 남의 개인 병원에서 고용 약제사 겸 사환으로 일해 왔던 사람이었다. >

◆ 겸2: (의존 명사) 어미 '-을' 뒤에 쓰여,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나타내는 말. < 명절도 설 겸 해서 한번 다녀가게. / 오래간만에 강호가 왔다는데 얼굴도 볼 겸 바깥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듣고자 문중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

정답: ④

문14)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14)

< 보기 >

대저 이 세상같이 억울하고 고르지 못한 세상이 없는지라. 가난코 약한 사람은 그 부모가 낳은 몸과 하늘이 주신 귀중한 목숨도 보전치 못하고, 심청 같은 출천대효가 필경 임당수 물에 가련한 몸을 잠겼도다. 그러나 그 잠긴 곳은 이 세상을 이별하고 간 상계니,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큰 세상이라. 이육에 눈이 어둔 세상 사람과 말 못하는 부처는 심청을 도울지 못하였거니와, 임당수 물귀신이야 어찌 심청을 모르리오.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서술하고 있다.

문14)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14)

◆ 이 작품은 '심청전'이다.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O)

◆ '대저 이 세상같이 억울하고 고르지 못한 세상이 없는지라. ~ 임당수 물에 가련한 몸을 잠겼도다. ~ 어찌 심청을 모르리오.'로 보아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점으로 말하자면 '전지적(全知的) 작가시점'이라 할 수 있다.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X) → 이 작품에서 대화가 나타나지 않고 인물 간 대립 또한 찾아볼 수 없다.

③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X) → '심청 같은 출천대효'로 외양묘사를 했다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출천대효는 심청의 외양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심청의 효심을 나타낸 것이다.

◆ 출천대효(出天大孝): [=출천지효(出天之孝)] 하늘이 낸 효자라는 뜻으로, 지극한 효자나 효성을 이르는 말.

④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서술하고 있다. (X) → 주인공은 '심청'으로 서술자가 아니다.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입장에서 심청이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①

문15) 밑줄 친 부분 중에서 목적어가 아닌 것은?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15)

- ① 우리는 그의 제안을 수용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 ② 사공들은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다.
- ③ 아이들이 건강하지를 알아 걱정이다.
- ④ 나는 일이 어렵고 쉽고를 가리지 않는다.

문15)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15)

① 우리는 그의 제안을 수용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목적어)

◆ 우리는 결정하지 못했다. 무엇을? = 그의 제안을 수용할지를

↓ ↓ ↓

주어(Subject) 서술어(Verb) 목적어(Object)

② 사공들은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다. (목적어)

◆ 사공들은 기다렸다. 무엇을? = 바람이 불기를

↓ ↓ ↓

주어(S) 서술어(Verb) 목적어(Object)

③ 아이들이 건강하지를 알아 걱정이다. (서술어)

● 아이들이 건강하지(를) 앓다. < ‘를’은 보조사 >

↓ ↓ ↓

문장성분: 주어 **서술어** (보조 서술어)

품사: (형용사) (보조 형용사)

● 를: 조사 ‘에, 으로’,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받침 없는 일부 부사 뒤에 붙어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아무리 해도 흥분이 가라앉지를 앓았다. / 한 시간도 놀지를 마라. / 화만 내지 말고 내 말도 좀 들어를 보세요. / 잊고를 싫어도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 / 전화가 걸려를 와야 주문을 받지요. / 그 여자는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내 말은 곧이를 듣지 않아요. >

◆ (어머니는) 걱정이다. 무엇이? 아이들이 건강하지 앓다는 것을

↓ ↓ ↓

주어 서술어 목적어

★ 정리: ‘아이들이 건강하지를 앓다.’를 단독 문장으로 보면 ‘건강하지를’은 서술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문장으로 봤을 경우 ‘건강하지를’은 목적어(아이들이 건강하지 앓다는 것을)의 일부라 볼 수 있다.

④ 나는 일이 어렵고 쉽고를 가리지 않는다. (목적어)

◆ 나는 가리지 않는다. 무엇을? 일이 어렵고 쉽고를

↓ ↓ ↓

주어 서술어 목적어(Object)

정답: ③

문16)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가장 옳은 것은?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16)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23) 올바른 국어 어법 (p.235 ~ 277) 완벽 정리
>

- ① 왜냐하면 한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 ②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합격했다는 사실이다.
- ③ 내가 그 분을 처음 뵈는 것은 호텔에서 내 친구하고 만나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 ④ 학계에서는 국어 문법에 관심과 조명을 해 나가고 근대 국어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문16)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16)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영보이 포인트 #23) 올바른 국어 어법 (p.235 ~ 277) 완벽 정리 >

- ① 왜냐하면 한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X)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고치면 된다.
 - 왜냐하면 한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O)
 - 개발도상국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
이다. (O)
- ②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합격했다는 사실이다. (X)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고치면 된다.
 -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은 우리의 합격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합격했다는 사실이다.
- ③ 내가 그 분을 처음 뵈는 것은 호텔에서 내 친구하고 만나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O)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 맞아 올바른 문장이다.
 - ◆ 내가 그 분을 처음 뵈는 것은 호텔에서 내 친구하고 만나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 내가 그 분을 처음 뵈는 때는 호텔에서 내 친구하고 만나 이야기하고 있을 무렵
이었다.
- ④ 학계에서는 국어 문법에 관심과 조명을 해 나가고 근대 국어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
했다. (X)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고치면 된다.
 - 학계에서는 국어 문법에 관심을 가지고 중세국어를 조명 해 나가며 근대 국어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답: ③

문17) <보기>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17)

< 보기 >

조선시대 임꺽정에 관한 모든 기록은 그를 의적이 아니라 도둑으로 기록하고 있다. 『명종실록』은 물론 박동량의 『기제잡기』, 이익의 『성호사설』, 안정복의 『열조통기』, 이덕무의 『청장관전서』등 임꺽정에 대해 언급한 모든 기록들에서 그는 도둑이다. 물론 이런 기록들은 모두 양반 계급이 서술한 것으로서 백성 출신인 그의 행위를 지지할 리 만무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홍명희는 왜 소설 『임꺽정』에서 그를 의적으로 그렸을까? 그 근거는 앞서 인용한 『명종실록』 사관의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며, 수령의 가렴주구는 재상이 청렴하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 및 “윤원형과 심통원은 외척의 명문거족으로 물욕을 한없이 부려 백성의 이익을 빼앗는 데에 못하는 짓이 없었으니, 대도(大盜)가 조정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라”는 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

- ① 임꺽정이 의적인지 도적인지 더 철저한 문헌 조사가 필요하다.
- ② 홍명희가 임꺽정을 지나치게 미화했던 것이다.
- ③ 도둑이든 의적이든 임꺽정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 ④ 가렴주구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임꺽정을 의적으로 상상했을 것이다.

문17)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17)

④ 가렴주구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임꺽정을 의적으로 상상했을 것이다. (O)

◆ ‘그렇다면 홍명희는 왜 소설 『임꺽정』에서 그를 의적으로 그렸을까? 그 근거는 앞서 인용한 『명종실록』 사관의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며, ~ 찾을 수 있다.’로 보아 당시 윤원형과 심통원 같은 대도들이 조정에 많았다. 그 대도들은 가렴주구(苛斂誅求)로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대도들을 혼내주기 위해 임꺽정 같은 사람을 내세워 의적으로 그렸던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대리만족으로 임꺽정을 의적으로 상상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 뒤에 이어질 내용은 ‘가렴주구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임꺽정을 의적으로 상상했을 것이다.’가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④

문18) 단어 형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서울시1회 9급 9급 B책형 문18)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영보이 포인트 #32) 파생어 & 합성어 (p.387 ~ 398) 정리 >

- ① 형용사 '기쁘다'에 동사 파생접미사 '-하다'가 붙으면 동사 '기뻐하다'가 생성된다.
- ② '시누이'와 '선생님'은 접미파생명사들이다.
- ③ '빛나가다'와 '공부하다'는 합성동사들이다.
- ④ '한여름'은 단일명사이다.

문18)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18)

- ◆ 합성어(合成語):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 '집안', '돌다리' 따위이다.
- ◆ 파생어(派生語):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 명사 '부채'에 접미사 '-질'이 붙은 '부채질', 동사 어간 '덮-'에 접미사 '-개'가 붙은 '덮개', 명사 '버선' 앞에 접두사 '덧-'이 붙은 '덧버선' 따위가 있다.
- ◆ 단일어(單一語):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된 말. '하늘', '땅', '밥' 따위이다. = 단순어

①형용사 '기쁘다'에 동사 파생접미사 '-하다'가 붙으면 동사 '기뻐하다'가 생성된다.(O)

◆ -하다1: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공부하다 / 생각하다 / 사랑하다 / 빨래하다 >

◆ -하다2: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건강하다 / 순수하다 / 정직하다 / 진실하다 / 행복하다 >

◆ 기쁘다: (형용사) 욕구가 충족되어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하다.

● 기뻐하다: (동사) 마음에 기쁨을 느끼다. / 어떤 일, 사실 따위를 기쁘게 여기다.

② '시누이'와 '선생님'은 접미파생명사들이다. (X)

◆ 시누이: '접두' 파생명사 < cf. 시누이 = 시누 = 시누 = 소고(小姑) = 숙매(叔妹) >

● 선생님: '접미' 파생명사

③ '빛나가다'와 '공부하다'는 합성동사들이다. (X)

◆ '빛나가다'는 접두사 '빛'이 붙어 파생어이고 '공부하다'도 접미사 '하다'가 붙어 파생어이다. < cf. '빛나가다'와 '공부하다' 모두 동사이다. >

④ '한여름'은 단일명사이다. (X)

◆ '한여름'은 접두사 '한'이 붙어 파생어이다.

◆ 한여름: 더위가 한창인 여름. = 성하(盛夏)

◆ 한: '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한가운데 / 한겨울 / 한낮 / 한밤중 / 한복판 / 한잠 >

정답: ①

문19)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19)
 < "고사성어 편" 2018영보이 공무원 한자 super upgrade / 前虎後狼(전호후랑) 그대로
 초대박 7번 적중 / p. 102, 106, 107, 159, 164, 165, 337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사설시조 해설 초대박 적중 p. 19 >

< 보기 >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뫼헤 매게 쫓친 가토리 안과, 대천(大川) 바다 한가온디 일천(一千)
 석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닛도 일코 농총도 근코 돛대도 것고 치도 빠지고 브람 부러 물결
 치고 안개 뒤섯게 즈자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나문디 사면이 거머어득 저못 천지적막
 가치노을 췌논디 수적 만난 도사공의 안과, 엇그제 님 여흰 내 안히야 엇다가 ㄱ을 흐리
 오.

- ① 捲土重來 ② 緣木求魚 ③ 前虎後狼 ④ 天衣無縫

문19)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19) "고사성어 편" 2018영보이 공무원 한
 자 super upgrade / 前虎後狼(전호후랑) 그대로 초대박 7번 적중 / p. 102, 106,
 107, 159, 164, 165, 337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사설시조 해설 초대
 박 적중 p. 19 >

◆ 이 작품은 사설시조로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임을 여윈 슬픔’을 노래하고 있
 다.

나모도 돌도 바히 업슨 뫼헤 매게 쫓 친 가토리 안과 < 나무도 돌도 바워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긴 까투리의
 마음과 >

大川바다 한가온대 一千石시른 비 에 노도 일코 닛도 일코 < 대천바다 한 가운데 일천석이나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닛도 잃고 >

농총도 근코 돛대도 것고 치도 빠 지고 브람 부러 물결치고 < 돛대의 줄도 끊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
 람 붙어 물결치고 >

안개 뒤섯게 즈즈진 날에 갈길은 千里萬리나문디 < 안개 뒤섞여 자욱한 날에 갈 길은 천 리 만 리 남았는데 >
 四面이 거머어득 저못 天地寂莫 ㉠가치노을 췌논 디 水賊 만난 都沙工의 안과, < 사방이 어둑어둑 저서 천지가
 적막하고, 사나운 파도가 몰아치는데 해적 만난 도사공(배사공의 우두머리)의 마음과 >

엇그제 님 여흰 내 안히야 엇다가 ㄱ을흐리오. < 엇그제 님을 여윈 내 마음과 어떻게 비교하리오, >

① 捲土重來(권토중래): 捲(말 권) 土(흙 토) 重(거듭 중) 來(올 래)

1)의미: 땅을 말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 번 실패(失敗)하였으
 나 힘을 회복(回復)하여 다시 쳐들어움을 이르는 말.

② 緣木求魚(연목구어): 緣(인연 연) 木(나무 목) 求(구할 구) 魚(물고기 어)

1)의미: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유의어 < 육지행선, 이란투석 >

1)陸地行船(육지행선): 陸(물 육(륙)) 地(땅 지) 行(다닐 행) 船(배 선)

a)의미: 육지에서 배를 저으려 한다는 뜻으로, 안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함을 비유적
 으로 이르는 말.

2)以卵投石(이란투석): 以(써 이) 卵(알 란(난)) 投(던질 투) 石(돌 석)

a)의미: 달걀로 돌을 친다는 뜻으로, 아주 약한 것으로 강한 것에 대항하려는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前虎後狼(전호후랑) (O): 前(앞 전) 虎(범 호) 後(뒤 후) 狼(이리 랑(낭)) < "고사성어 편" 2018영보이 공무원 한자 super upgrade / 前虎後狼(전호후랑) 그대로 초대 박 7번 적중 / p. 102, 106, 107, 159, 164, 165, 337 >

1)의미: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고 있으려니까 뒷문으로 이리가 들어온다는 뜻으로, 재앙이 끊일 사이 없이 닥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유의어

1)雪上加霜(설상가상): 雪(눈 설) 上(위 상) 加(더할 가) 霜(서리 상)

a)의미: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b)영어사전: to make matters[things] worse(설상가상으로)

* 반의어

1)錦上添花(금상첨화): 錦(비단 금) 上(위 상) 添(더할 첨) 花(꽃 화).

a)의미: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왕안석의 글에서 유래한다.

④ 天衣無縫(천의무봉): 天(하늘 천) 衣(옷 의) 無(없을 무) 縫(꿰맬 봉)

1)의미: 천사의 옷은 꿰맨 흔적이 없다는 뜻으로, 일부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우면서 완전함을 이르는 말. '태평광기'의 곽한(郭翰)의 이야기에 나오는 말로, 주로 시가(詩歌)나 문장에 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 완전무결하여 흠이 없음을 이르는 말. /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어린이와 같은 순진함을 이르는 말.

정답: ③

문20) 문맥상 <보기>의 ㉠,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20)

< 보기 >

현실 상황에서 개인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를 넘나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 없이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작동하는 일반적인 근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다. 경험적 세계의 퍼즐을 푸는 일에 매달리지 않는 한, 이론적 저작은 경험적 세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타성에 의해 (㉡)(으)로부터 빛나가게 된다.

①㉠ 현실, ㉡ 이론 ②㉠ 이론, ㉡ 현실 ③㉠ 경험, ㉡ 현실 ④㉠ 이론, ㉡ 경험

문20)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1회 9급 B책형 문20)

② ㉠ 이론, ㉡ 현실 (O)

㉠ 이론(理論): '(㉠) 없이는 ~ 일반적인 근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다.'로 보아 ㉠은 이론(理論)이 들어간다.

◆ 이론(理論):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 반화한 명제의 체계.

◆ 메커니즘(mechanism): 사물의 작용 원리나 구조. '체제'로 순화.

㉠ 현실(現實): '경험적 세계의 퍼즐을 푸는 일에 매달리지 않는 한, 이론적 저작은 경 험적 세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타성에 의해 (㉠)(으)로부터 빛나가게 된다.' 로 보아 ㉠은 '현실(現實)'이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 서술어 '빛나가게 된다.'로 보아 '경험으로부터 빛나가게 된다.'는 문장 자체가 어색하다. 따라서 '빛나가다'는 '현실로부 터 빛나가다'가 문맥상, 어휘상 더 매끄럽다.

정답: ㉡

- 영보이 저서 -

◆ 2018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super upgrade < 판매 중 / 한자 & 고사성어 합권 >

★ 2018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super upgrade < 판매 중 / 한자 & 고사성어 분권 >

◆ 2018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수정판) < 판매 중 >

✂ 2017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2017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기출문제와 그의 친구들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영보이 이메일 < youngboy0710@naver.com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공시 공부는 이렇게: <https://blog.naver.com/youngboy0710/221152935702>